

2024년 원가분석 보고서

계란가격분석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

2025. 1. 31

목 차

| | |
|-----|--------------------|
| I | 문제제기 |
| II | 계란 가격 변동 사례 |
| III | 국내계란시장과 관련 재무분석 |
| IV | 계란 가격 안정화 정책 사례 |
| V | 가격 안정화를 위한 결론 및 제안 |



I. 문제제기

- 2024년 3분기 기준,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8,054만 5천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8천만 마릿수 시대 열림.
 - 통계청 발표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8천만 마리를 넘어선 것은 가축동향조사 발표 이래 처음 있는 일. 이러한 증가 추세로 인해 계란 생산량이 많아지고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사육 마릿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계란 가격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만큼 소비가 늘었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추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번달 계란 생산량을 하루 평균 4천900만개, 다음달은 4천951만개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소비가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계란 가격 안정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전망함.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2년 유예, 2027년 9월 전면 시행
 - 지난 2016~2017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에 이어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산란계 사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농식품부는 2018년 산란계 사육 면적을 확대하도록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4년 11월 20일 사육환경 개선 연착륙 방안을 밝힘. 이에 따라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시행 시점을 내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2027년 9월 1일부터 산란계 사육 면적 기준이 현행 마리당 0.05㎡에서 0.075㎡로 50% 상향 조정될 예정.

-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할 예정. 계사 건폐율 상향(20%→60%), 케이지 단수 확대(9단→12단) 등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란계 축사시설 활용도를 높일 계획으로 밝힘.
- 이러한 변화는 산란계의 복지 향상과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국내외 계란 시장의 동향

- 동물 복지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 국가마다 식품 안전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유럽연합(EU): EU는 2012년부터 '개선된 케이지(enriched cage)'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란계 한 마리당 최소 750cm²(0.075m²)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의 통일된 규정은 없으나, 케이지 프리(cage-free) 사육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2015년 전체 산란계의 6%에 불과하던 케이지 프리 사육 비율이 2021년 3월 기준 29.3%로 증가함.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부터 산란계 한 마리당 최소 116.1cm²(0.116m²)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법제화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모든 산란계가 케이지 프리(cage-free) 환경에서 사육되도록 규정함.
- 호주는 주별로 규정이 상이 하나, 일부 주에서는 한 마리당 최소 550cm²(0.055m²)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권장함.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음.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국의 산업 구조와 동물 복지 수준에 따라 산란계 사육 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계란은 기초 식재료로 다른 가공 식품의 원재료나 외식 메뉴의 식재료로 많이 이용되는 품목임. 또한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가격 안정화가 매우 필요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은 14.3kg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함. 이를 기준으로 고려하면 2023년 국내 총 소비량은 약 7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계란의 가격 상승은 밥상 물가 상승 및 산업 전반적인 연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계란 가격의 합리적 · 안정적 가격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해 각 유통단계의 정보 공개 및 물가 감시가 필요함.
- 계란 가격 인상 현황을 보면 계란의 산지가격 상승률보다 계란 소비자가 상승률이 높아 계란의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유통 마진의 적정성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아야 함.
- 계란 가격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큰 폭의 급등과 급락을 거듭해 옴. 과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며 계란 값 주요 변동 요인을 알아보고,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밝히고자 함.

II. 계란 가격 변동 사례

계란 가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며, 그 변동폭이 매우 큰 편임.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급등과 하락을 경험함. 주요한 계란 가격 변동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2016~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 2016년 말부터 2017년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면서 약 3,8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됨. 이로 인해 계란 공급이 급감하여, 한 판(30구) 가격이 평소 5,000~6,000원을 유지하던 계란값이 최고 12,500원까지 상승함.

□ 정부에서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 및 가공품의 긴급 수입을 추진함. 또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자 계란 대체식품(두부, 달걀가루 등)의 소비를 장려함. 이 이후 수입 계란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함.

□ 이후 몇 년간 정부와 농가는 산란계 농장의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계란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임. 그러나 2016년의 AI 사태는 계란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됨.

2. 2020~2021년 AI 재발과 가격 상승

□ 2020년 11월부터 다시 AI가 발생하여 약 1,675만 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됨. 이는 전체 산란계의 약 23%에 달하는 수준이었음. 이에 따라 계란 공급이 줄어들며, 2020년 10월 기준 약 4,000원이던 계란 한 판의 소매가가 2021년 4월 기준 7,400원대로 상승.

□ 이 이후 정부에서는 미국, 태국 등에서 계란 및 가공 계란 제품을 수입

하여 공급을 보충함. 또한 계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공급 확대와 유통망 정비를 추진함. 외식업계와 제과·제빵 업계에서도 계란 사용량을 줄이는 레시피나 대체재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3. 2022년 국제 곡물가 상승과 가격 변동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비가 상승함. 곡물은 닭 사료의 주원료이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 상승은 계란 생산비 증가로 이어짐. 2022년 4월 기준 특란 30구의 평균 소비자 판매 가격이 7,010원으로 1개월 전보다 10.3% 상승함.

□ 2022년 국제 곡물가 상승은 계란 생산비의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됨. 이후에도 곡물 공급망 안정화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이 계란 가격 안정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4. 2023년 AI 확산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

□ 2023년 12월, 고병원성 AI가 발생 3주 만에 2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며, 전체 사육 마릿수의 약 3.5%에 해당하는 산란계 약 267만 마리가 살처분됨. 하지만 정부와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으로 피해 규모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가 미국산 흰 계란을 수입하여 공급함으로써 계란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

□ 이러한 사례들은 계란 가격이 질병 발생, 국제 정세, 사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역 관리와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함.

Ⅲ. 국내 계란시장 및 관련 재무분석

□ 국내 계란 유통과정 및 단계별 발생비용

<그림 3-1 국내계란 유통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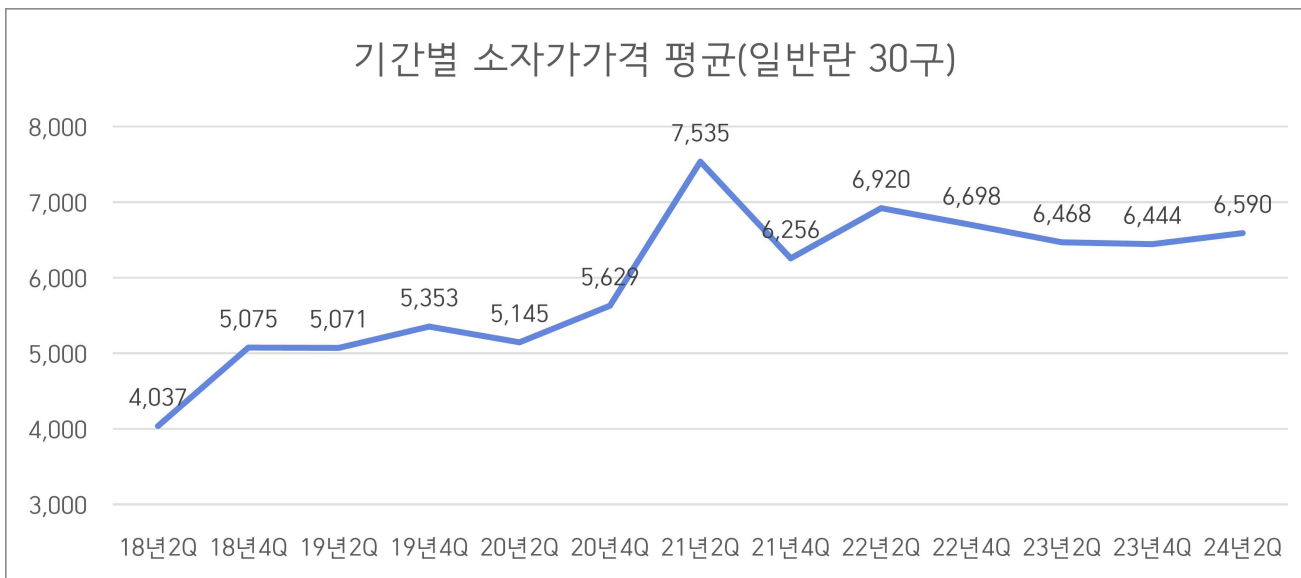
- 국내계란 유통과정은 크게 생산, 선별 및 세척, 포장, 유통, 판매의 과정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 생산단계는 산란계 사육의 단계로 농장에서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여 계란을 생산하고, 산란된 계란은 자동화된 시스템 등을 통해 수거됨. 생산단계에서는 계란의 생산비용이 발생하며, 사료비용, 가축비용 및 기타 관리운영비용이 발생함.
- 생산된 계란은 계란의 껍데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물과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되며, 계란의 외형(균열여부, 이물질 등)을 검사하고, 알 내부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샘플의 투과검사(캔들링)를 진행하는 검수과정 거침. 이후 계란의 무게에 따라 크기를 분류함. 해당 단계에서는 세척비용 및 검사비용이 발생함.
- 세척 및 선별된 계란은 파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며, 유통기한, 원산지, 등급 등의 정보를 표시함. 해당 단계에서는 포장재비용, 포장인건비 등이 발생함.
-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저온 유통체계를 사용하며, 중간 저장시

유통업체의 창고는 습도와 온도를 철저히 관리되는 물류창고에 보관됨. 해당 단계에서는 냉장차 드의 운송비용 및 물류센터 저장비용 등이 발생함.

□ 국내 계란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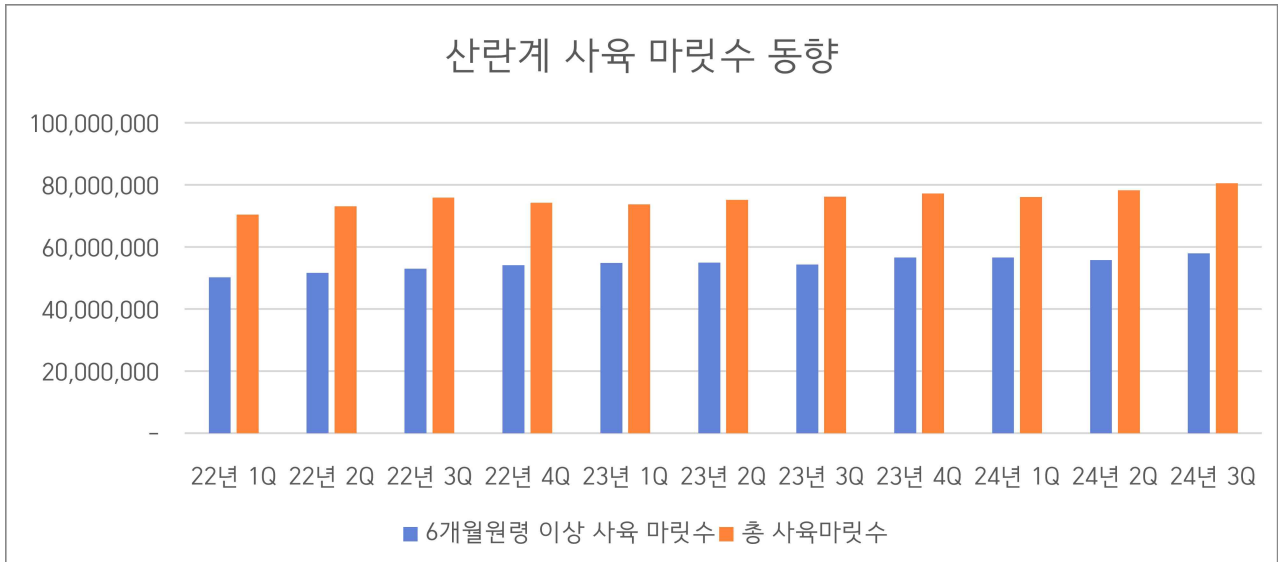
- 계란의 소비자가격의 경우 20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감소하여 계란공급이 줄어들어 따라 가격이 급등하였음. 2022년 이후 사육 마릿수 회복과 안정적인 공급으로 가격이 안정되었음. 이후 2023년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및 사료비 상승등으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였으며, 2024년은 북미와 유럽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세계 계란 공급이 감소하였으나, 국내 계란가격은 2022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그림 3-2 계란소비자가격 변동추이>



-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7,822만마리로 전년 대비 303만마리(4.1%)증가하였으며, 이는 산란성계노계 도태주령 연장인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란 생산량의 증대로 이어져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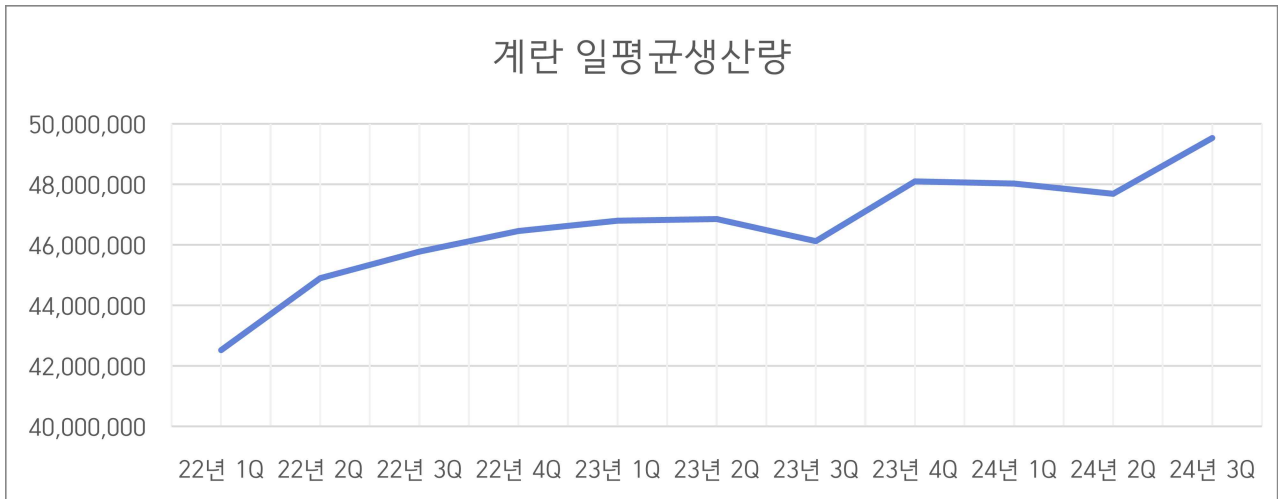
<그림 3-3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리수 변동추이>



(자료 : 통계청)

- 일평균 계란생산량의 경우 6월 평균 4,769만개로 전년대비 1.8%증가, 평년(19~23년)대비 5.5% 증가하였음. 또한 24년 6월 1일 기준 산란율은 85.5%로 전년대비 0.2%p 상승, 전분기 대비 0.6%p 상승하였음.

<그림 3-4 국내계란 생산량 변동추이>



- 위에서 살펴본 국내 계란시장을 보면, 산란계의 사육마리수의 전반적인 증가함에 따른 계란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2021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

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계란 생산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계란 10개당 생산비는 1,083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1,310원으로 전년 대비 21.0%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353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음. 이러한 생산비 증가는 주로 사료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산란용 배합사료의 가격은 2021년 457원/kg에서 2022년 589원/kg으로, 2023년에는 605원/kg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또한, 생산비 증가로 인해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2년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은 7,256원으로 전년 대비 63.0%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4,830원으로 전년 대비 33.4% 감소함에 따라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주요 업체 재무분석 및 관련 시장분석

-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주요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농업회사법인 세양(주), 농업회사법인 조인팜스(주),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의 4개사의 재무제표 분석을 분석함.
- 주요 업체의 손익계산서 매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율은 대부분 5%전후로 높지 않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3-1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재무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매출 | 235,151,370 | 263,179,184 | 271,270,896 | 276,668,575 | 320,492,865 |
| 매출원가 | 198,692,449 | 213,027,145 | 210,125,776 | 231,590,481 | 270,870,771 |
| 매출총이익 | 36,458,921 | 50,152,039 | 61,145,120 | 45,078,094 | 49,622,094 |
| 판매관리비 | 34,064,001 | 38,056,411 | 36,886,181 | 39,074,803 | 42,613,452 |
| 영업이익 | 2,394,920 | 12,095,628 | 24,258,939 | 6,003,291 | 7,008,642 |
| 매출총이익율 | 16% | 19% | 23% | 16% | 15% |
| 영업이익률 | 1% | 5% | 9% | 2% | 2% |

<표 3-2 농업회사법인 세양(주) 재무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매출 | 47,833,293 | 50,008,343 | 39,051,766 | 55,283,898 | 71,742,525 |
| 매출원가 | 38,513,999 | 42,295,391 | 32,017,875 | 44,691,738 | 60,036,428 |
| 매출총이익 | 9,319,294 | 7,712,952 | 7,033,891 | 10,592,160 | 11,706,097 |
| 판매관리비 | 7,556,361 | 7,299,853 | 6,356,090 | 9,022,181 | 10,888,187 |
| 영업이익 | 1,762,933 | 413,099 | 677,801 | 1,569,979 | 817,910 |
| 매출총이익율 | 19% | 15% | 18% | 19% | 16% |
| 영업이익률 | 4% | 1% | 2% | 3% | 1% |

<표 3-3 농업회사법인 조인팜스(주) 재무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매출 | | | 34,918,138 | 72,508,637 | 96,866,458 |
| 매출원가 | | | 27,694,148 | 61,680,963 | 87,861,330 |
| 매출총이익 | | | 7,223,990 | 10,827,674 | 9,005,128 |
| 판매관리비 | | | 1,946,955 | 6,509,895 | 7,062,936 |
| 영업이익 | | | 5,277,035 | 4,317,779 | 1,942,192 |
| 매출총이익율 | | | 21% | 15% | 9% |
| 영업이익률 | | | 15% | 6% | 2% |

주: 1) 2021년설립으로 이전 재무정보 없음.

<표 3-4 농업회사법인 가능바이오(주) 재무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매출 | 41,270,228 | 62,417,175 | 75,603,632 | 67,684,071 | 77,486,472 |
| 매출원가 | 41,020,621 | 45,066,328 | 50,501,558 | 57,917,406 | 59,791,735 |
| 매출총이익 | 249,607 | 17,350,847 | 25,102,074 | 9,766,665 | 17,694,737 |
| 판매관리비 | 5,516,633 | 8,368,382 | 9,577,215 | 9,754,797 | 12,389,538 |
| 영업이익 | -5,267,026 | 8,982,465 | 15,524,859 | 11,868 | 5,305,199 |
| 매출총이익율 | 1% | 28% | 33% | 14% | 23% |
| 영업이익률 | -13% | 14% | 21% | 0% | 7% |

- 계란의 제조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업체의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제조원가명세서의 세부 구성항목등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전체 제조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원재료비, 노무비, 감가상각비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며, 구성상 사료비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는 원재료비의 비중이 총 제조비용 중 6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노무비 10%전후, 기타 경비 중에는 시설 관련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높으나, 전체 제조비용을 기준으로 2~5% 수준으로 크지 않음.

<표 3-5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주요원가항목>

(단위: 천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총제조비용 | 183,134,015 | 197,362,473 | 183,041,808 | 166,855,553 | 185,113,657 |
| 원재료비 | 135,600,652 | 150,945,917 | 152,733,576 | 143,263,467 | 161,301,403 |
| 원재료비 비율 | 74% | 76% | 83% | 86% | 87% |
| 노무비 | 15,020,670 | 16,778,195 | 8,315,955 | 5,320,636 | 4,924,058 |
| 노무비 비율 | 8% | 9% | 5% | 3% | 3% |
| 감가상각비 | 13,137,162 | 11,799,954 | 5,444,420 | 2,552,462 | 2,506,880 |
| 감가상각비 비율 | 7% | 6% | 3% | 2% | 1% |

<표 3-6 농업회사법인 세양(주) 주요원가항목>

(단위: 천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총제조비용 | 50,052,301 | 67,156,004 | 54,288,614 | 70,509,731 | 82,423,685 |
| 원재료비 | 37,076,161 | 50,210,378 | 44,400,058 | 58,171,466 | 67,975,425 |
| 원재료비 비율 | 74% | 75% | 82% | 83% | 82% |
| 노무비 | 6,019,929 | 7,009,469 | 4,328,265 | 2,614,883 | 6,322,266 |
| 노무비 비율 | 12% | 10% | 8% | 4% | 8% |
| 감가상각비 | 1,031,520 | 1,262,110 | 1,085,486 | 2,599,862 | 1,339,747 |
| 감가상각비 비율 | 2% | 2% | 2% | 4% | 2% |

<표 3-7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 주요원가항목>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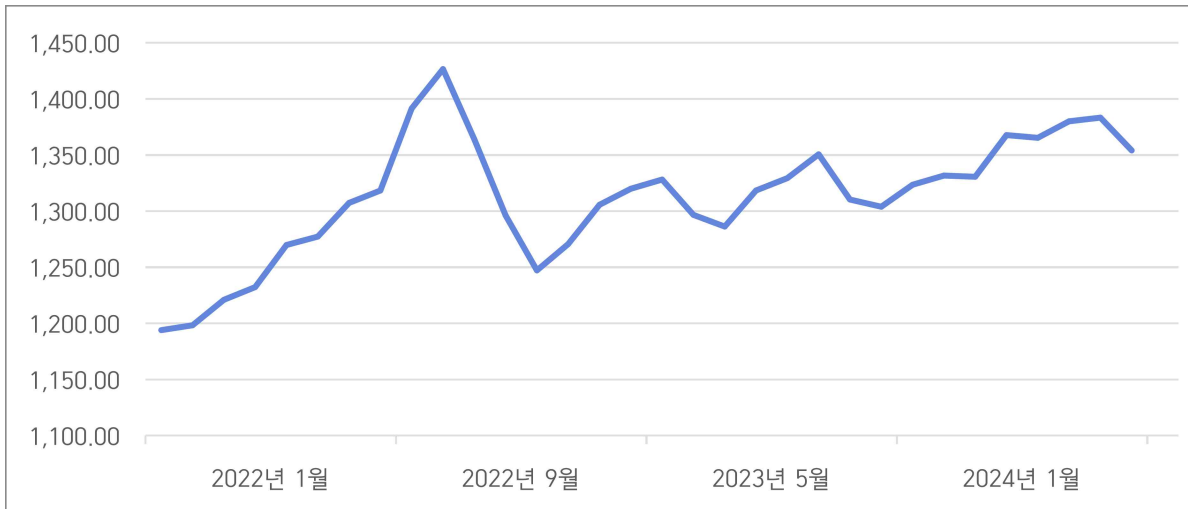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총제조비용 | 78,714,573 | 44,663,774 | 93,622,766 | 108,289,542 | 106,084,369 |
| 원재료비 | 51,491,548 | 31,287,387 | 60,630,446 | 72,583,346 | 68,870,452 |
| 원재료비 비율 | 65% | 70% | 65% | 67% | 65% |
| 노무비 | 5,831,067 | 4,109,827 | 6,492,057 | 7,242,815 | 7,944,774 |
| 노무비 비율 | 7% | 9% | 7% | 7% | 7% |
| 감가상각비 | 5,007,060 | 1,330,987 | 5,197,395 | 5,346,189 | 5,544,235 |
| 감가상각비 비율 | 6% | 3% | 6% | 5% | 5% |

- 2022년 양계용 배합사료의 평균가격이 2021년 대비 약 25.6%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제조비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짐.
- 국내 배합사료의 가격은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 환율변동, 국내 생산비용의 영향을 받으며, 해당 배합사료 가격의 안정화 시키는 방안이 결국 계란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 배합사료의 가격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곡물가격의 경우, 2020년 하반기 남미 지역의 기상 악화와 공급망 차질 우려로 가격이 상승

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밀과 잡곡류의 국제 가격은 2020년 대비 30%, 옥수수 가격은 50%이상 상승하였음.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 규제와 주산지의 기상악화 등으로 곡물 가격 관련 선물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산란용 배합사료의 가격은 2021년 457원/kg에서 2022년 589원/kg으로, 2023년에는 605원/kg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양계업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계란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원달러 환율은 2022년 10월 1,400원대를 돌파하였으며 이후 주춤하다 최근 상승추세에 있음. 팬데믹 이후 미국 연준은 2022년부터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였으며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로 이어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 및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가격 상승은 원화 약세를 초래함. 또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여 높은 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며 미국의 강한 성장세 대비 한국이 상대적 약세를 보여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 그림 3-5 환율 추이 >



- 계란의 유통과정의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분석해 보면, 주요업체들의 운반비의 비중이 30~50%까지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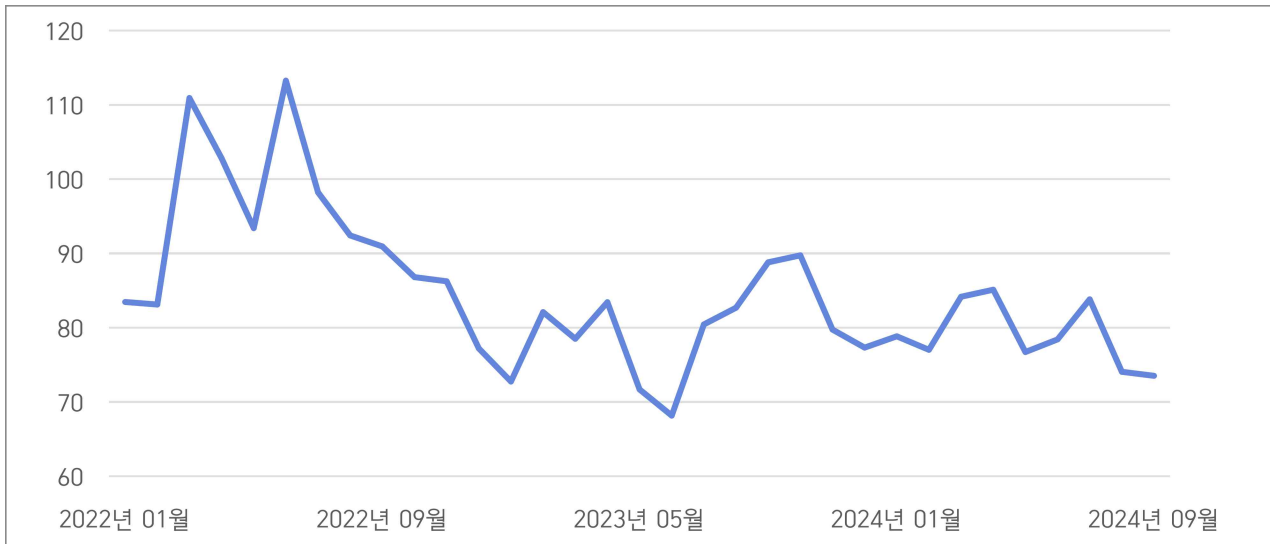
<표 3-8 주요업체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송비 비중>

(단위: 천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 36% | 32% | 33% | 43% | 49% |
| 농업회사법인 세양(주) | 53% | 53% | 56% | 52% | 54% |
|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 | 50% | 50% | 46% | 45% | 45% |

- 운반비의 경우 국제유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계란과 같은 신선 식품의 경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상태로 운송해야 하며, 이에 따라 냉장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유통과정에서 운송비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 그림 3-4 국제유가(두바이유) 추이 >



-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국제 유가는 큰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 감소에 대한 전망이 강해졌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수요 증가 기대가 줄어들었다. 이에 최근 환율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 계란의 생산비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가격으로 해당 사료가

격은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또한, 유통과정 중에는 운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비는 국제유가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할 때, 계란가격의 안정화는 해당 사료가격 및 운송비의 안정화를 시켜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IV. 계란 가격 안정화 정책 사례

□ 계란 가격 안정화 정책

- 계란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시장 불안정이 발생할 때 정부, 농가, 유통업체가 협력하여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함.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란 가격의 안정화 사례가 존재함.
- 한국에서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닭의 대량 살처분이 이루어지며 계란 공급이 급감함.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계란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호주 등에서 계란과 계란가공품을 긴급 수입하였으며, 농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재생산을 지원하고, 농협 등이 비축해 둔 계란을 시장에 방출해 수급분균형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 일본에서는 계란 가격이 급등할 경우, 농가와 유통업체가 협의해 출하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음. 정부와 협회가 계란의 시장 평균가를 모니터링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며,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EU에서는 환경 규제 강화로 계란 생산비가 증가하며, 농가 경영이 악화되었음. 이로 인해 생산농가에 보조금을 지워하였으며,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협력으로 직거래 플랫폼의 확대 등 유통체계 개선을 하였음. 또한 생산비와 유통비용의 공개로 정보를 투명화 하였음. 이에 생산비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 안정화에 성공하였음.

- EU에서는 환경 규제 강화로 계란 생산비가 증가하며, 농가 경영이 악화되었음. 이로 인해 생산농가에 보조금을 지워하였으며,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협력으로 직거래 플랫폼의 확대 등 유통체계 개선을 하였음. 또한 생산비와 유통비용의 공개로 정보를 투명화 하였음. 이에 생산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 안정화에 성공하였음.
- 미국에서는 농가간의 과잉생산과 공급부족으로 계란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농가와 장기 계약을 맺어 생산량을 미리 조정하는 계약재배 시스템의 운영과 저장계란의 방출 등 유통량 조절을 통해 계란 가격의 장기적 안정화를 형성하였음.

V. 가격 안정화를 위한 결론 및 제안

□ 생산비 절감 지원

- 계란의 생산비는 국제 곡물가격의 영향이 큰 만큼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료 원료수입 다변화가 필요함. 더 나아가 대체사료 개발 및 공급확대 등의 지원을 통한 국내 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계란의 생산비 중 사료가격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 전반적인 노무비 증가의 원인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중소 농가의 장동화 시설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노무비 절감을 통한 계란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복지 관련 정부의 지원 및 소비자 인식 변화

- 산란계의 사육 면적 상향은 국제 기준의 충족 및 산란계 복지 개선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 다만, 점진적인 도입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생산비의 증가는 소비자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체계적인 계획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산란계의 사육 면적 상향을 통해 장기적으로 계란 품질 개선, 동물 복지 강화, 질병 예방 효과 기대된다는 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 및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 진행이 필요함.

계란 가격 분석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 보고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524~525호
TEL 02-774-4060, FAX 02-774-4090
sohyub@consumer.or.kr, price@consumer.or.kr
<http://www.consumer.or.kr/>, <http://price.consumer.or.kr/>

※ 작성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박희웅 회계사